

Journal of the Humanities

# 인문연구

제106호 / 2024. 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연구소 임원

소 장: 김기호 교수(영남대 국어국문학과)

부 소 장: 박한우 교수(영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운영위원: 손승희 교수(영남대 역사학과)

백찬욱 교수(영남대 불어불문학과)

정우현 교수(영남대 글로벌통번역학부)

우재호 교수(영남대 중국언어문화학부)

연구교수: 윤경애(영남대 일어일문학과)

임도현(영남대 중어중문학과)

연 구 원: 김영철(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김유정(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김인환(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행정담당: 김유정(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목 차

- 편집노트 ..... 편집위원회 / i

### 【일반논문】

- 「김현감호」에 나타난 인정과 환대 ..... 이금희 / 1
- 최서해의 낭만적 열정과 자기해방적 글쓰기 ..... 이형진 / 29
-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과 시민 인문정신  
진흥의 방향성 고찰 ..... 이희원 · 서민정 / 69
- 인공지능(AI)과 배제적·고립적 노동분업, 그리고  
탈사회적 개인화 ..... 안도현 / 101



## 【편집노트】

이번 호에는 총 10편이 투고되어 4편이 게재 확정되었다. 게재율은 40%이다.

이번 106호에는 철학, 문학, 어학, 인류학, 인문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이 다수 투고되었다. 그리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4편의 논문들이 실리게 되었다.

특히 이번 106호에는 인간의 감정을 분석의 주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는 논문들이 게재된 점이 눈에 띈다.

「『김현감호』에 나타난 인정과 환대」는 『삼국유사』의 「김현감호」를 이항 대립의 구조로 설명하고, 이를 자기 이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논문이다. 이질적 존재가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런 인정과 환대의 태도는 노마드적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최서해의 낭만적 열정과 자기해방적 글쓰기」는 최서해 문학을 낭만적 열정과 낭만적 주체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논문이다. 최서해 문학에 관류하는 낭만을 자신의 의지를 불합리한 제도와 같은 다른 의지에 종속시키지 않고 온전한 주체를 정립하려는 원동력으로 보며, 최서해에게 문학이란 자기해방적 글쓰기라고 보았다. 이는 최서해의 글쓰기를 ‘문학의 민주주의’라는 보다 넓은 맥락으로 이동시키며, 최서해 문학의 의미를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과 시민 인문정신 진흥의 방향성 고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인 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집중적으로 살핀 논문이다. 해당 계획이 시민 사회에서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밝히면서도 한계점에 대해서 논하며, 그 가운데 ‘외로움’을 인문학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 다소 비현실적인 면모가 보임을 지적하고 있

다. 외로움이라는 내밀한 문제를 포럼이나 거점센터 등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상정한다는 점이나, 심리학 전문가의 문제로 전환하는 등의 접근 방식이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맥락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지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적절한 정책의 수행을 위한 비판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번 『인문연구』 106호에 게재된 논문들을 읽고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게재 확정된 논문들에 쏟았을 투고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쉽게 이번 호에 실리지 못한 논문의 연구자들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전한다.